***Session 10: The Father’s House and the Healing of the World* 제 10 강: 아버지의 집과 세상의 치유**

27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to you; not as the world gives do I give to you.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neither let it be afraid. (John 14:27)  
27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7)

1.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 In John 13, John emphasizes Jesus’ departure (13:1, 3). Jesus announces His departure to His disciples (Jn. 13:33). The announcement of His departure was unsettling for the disciples because they had placed their understanding of the Messianic hope and their own future destiny on Jesus.   
      요한복음 13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떠나가심을 강조했다 (13:1, 3).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떠나가심을 알리셨다 (요 13:33).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한 발표는 제자들을 불안하게 했는데, 이는 제자들이 메시아적 소망과 그들 자신의 미래 운명을 예수님께 두었기 때문이었다.

1Then Jesus went out and departed from the temple, and His disciples came up to show Him the buildings of the temple. (Mt. 24:1)  
1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마24:1)

* 1. When Jesus spoke of His departure, the mention of it had a devastating effect, and sometimes even angered the disciples, especially after elements of His glory were revealed (Mt. 16:16; 17:1-5).   
     예수님께서 당신의 떠나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그 언급은 엄청난 충격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예수님의 영광의 요소들이 드러난 후에는 때로 제자들을 화나게 하기까지 했다 (마 16:16; 17:1-5).

22Then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saying, ﻿“Far be it from You, Lord; this shall not happen to You!” 23But He turned and said to Peter, “Get behind Me, ﻿Satan! ﻿You are ﻿an offense to Me, for you are not mindful of the things of God, but the things of men.” (Mt. 16:22-23)  
22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23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16:22-23)

22… Jesus said to them, “The Son of Man is about to be betrayed into the hands of men, 23and they will kill Him, and the third day He will be raised up.” And they were exceedingly sorrowful. (Mt. 17:22-23)  
22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23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17:22-23)

32But they did not understand this saying, and were afraid to ask Him. (Mk. 9:32)  
32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막9:32)

* 1. The hope of the apostles was not merely personal or therapeutic, but was covenantal and thus global. They had left everything for this covenantal and global hope as well as their own personal destinies. They understood they played a critical role in the Messiah’s future administration.  
     사도들의 소망은 단지 개인적이거나 치료적인 것만 아니라 언약 적인 것이었고 그래서 세계적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운명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 언약 적이며 세계적인 소망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있었다. 그들은 메시아의 미래 행정부에서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27Peter… said to Him, “See, we have left all and followed You. … when the Son of Man sits on the throne of His glory, you who have followed Me will also sit on twelve thrones, … (Mt. 19:27-28)  
27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대 …28예수께서 이르시되 …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 (마19:27-28)

6Therefore, when they had come together, they asked Him, saying, “Lord, will You at this time restore the kingdom to Israel?” (Ac. 1:6)  
6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행1:6)

4So I wept much, because no one was found worthy to open and read the scroll, or to look at it.… Behold, 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 the Root of David, has prevailed ...” (Rev. 5:4-5)  
4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 [보라; 뉴 킹 제임스 역]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 (계5:4-5)

* 1. In John 14, Jesus gives instruction to stabilize the heart as well as reorient our understanding of how He will establish the repairing of the world, Tikkun Olam. Judas asks a key question about the future promise of the global manifestation of Jesus’ glory. *What about the manifestation of the fullness of God’s glory in the earth?*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당신이 티쿤 올람으로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정립하도록 지시하신다. 유다는 예수의 영광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미래의 약속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을 던진다. **땅에서 하나님 영광의 충만한 나타남은 어떻습니까?**

22Judas (not Iscariot) said to Him, “Lord, how is it that You will manifest Yourself to us, and not to the world?” (Jn. 14:22)  
22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요 14:22)

3“Holy, holy, holy is the Lord of hosts; the whole earth is full of His glory!” (Isa. 6:3)  
3…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사6:3)

1. he will make all things new: the repairing of the world  
   예수님은 세상을 고치심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10“…that in the dispensation of the fullness of the times He might gather together in one all things in Christ, both which are in heaven and which are on earth—in Him.” (Eph. 1:10)  
9…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10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엡 9b-10)

* 1. “Avraham Avinu, our father Abraham, was the first person to ***successfully unite the physical and spiritual***. Abraham sees as ***his central mission*** in life the elevation of existence from one level to the next, while ***maintaining full ties with it.*** From the moment that he discovers that there is one Creator who created one harmonious world…***he tries to pass on this message to others in any way possible***. With this he begins the difficult process of ***Tikkun Olam (the mending of the world),*** setting his sights on his ultimate goal: the day when "God will be one, and His name one" (Zechariah 14:9). In order to bring about ***the complete union between the physical existence*** and the Creator, one must live in the Land of Israel. Israel, by her very nature, is an expression of the sanctification of the physical: a physical land which is, at the same time, holy.[[1]](#footnote-1)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인 아브라함 아비누는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성공적으로 결합**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 **삶의 중심 사명**을 **완전한 유대를 유지하면서** 한 수준에서 다음 수준으로 삶에서 높이는 존재로 본다. 그가 한 조화로운 세상을 창조하신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그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한다**. 이것으로 그는 티쿤 올람(세상의 보수)의 어려운 과정을 시작하여 **"하나님이 홀로 하나가 되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가 되실 것"** (슥 14:9)인 그 날을 그의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물리적 존재**와 창조주 사이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분이 이스라엘 땅에 살아야 한다. 그 본성상 이스라엘은 물리적인 것의 성화의 표현이다. 물리적인 땅은 동시에 거룩하다.

9By faith he (Abraham) dwelt in the land of promise as in a foreign country, dwelling in tents with Isaac and Jacob, the heirs with him of the same promise; 10for he waited for the city (the Father’s house) which has foundations, whose builder and maker is God. (Heb. 10:9-10)  
9믿음으로 그(아브라함)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10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아버지의 집) 바랐음이라 (히 11:9-10)

* 1. The expectation of the disciples was undoubtedly consistent with the general national Messianic hope. The Messiah was someone who was going to come from the line of David. He would come with great power to deliver Israel from her Gentile occupation and lead her into the fullness of His promised glory and her place as chief among the nations (Isa. 60-66, Dt. 28:13, Ex. 19:5, Jer. 31:7).  
     제자들의 기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일반적인 국가적 메시아적 소망과 일치했다. 메시아는 다윗의 가계를 통해 오실 분이었다. 그는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점령에서 건져내고 약속된 영광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열방에서 우두머리의 자리로 인도할 것이다 (사 60-66, 신 28:13, 출 19:5, 렘 31:7).
  2. The Messianic age would establish restored relationship with God, the cessation of all conflict and hostility between Israel and the nations, with and within the animal kingdom, the environment etc. The Messiah would be the one to bring and establish justice resulting in Tikkun Olam or shalom.  
     메시아 시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확립되고, 동물의 왕국과 환경 등도 포함하여 이스라엘과 열방 사이의 모든 갈등과 적대감이 종식될 것이다. 메시아는 정의를 가져오고 확립할 수 있는 분으로 티쿤 올람 또는 샬롬을 이루실 것이다.

27Peace (shalom)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to you; not as the world gives … (Jn. 14:27)  
27… 나의 평안(샬롬)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 (요14:27)

2And the fear of you and the dread of you shall be on every beast … every bird …on all the fish of the sea. They are given into your hand. (Gen. 9:2)  
2…모든 짐승…모든 새…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창9:2)

* 1. Though shalom is most commonly recognized as meaning “peace,” its meaning is more nuanced than that alone. The “peace” of shalom carries the connotation of completeness, prosperity, health, salvation, and wholeness. This shalom is the end result of God’s justice coming forth on the earth.  
     샬롬은 "평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인식되지만 그 의미는 그 보다 더한 뉘앙스를 갖고 있다. 샬롬의 "평화"는 완전성, 번영, 건강, 구원 및 온전 함의 함축적 의미이다. 이 샬롬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정의의 최종 결과이다.
  2. God’s justice is about wholeness and divine order of everything that He has created. Justice is mostly limited to operating socially or legally; however, God’s justice encompasses every sphere, both spiritual and natural, including the environment, our homes, our workplaces, governments, friendships, and our inner life. At its core, justice is about everything being made whole—shalom.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의 온전함과 신성한 질서에 관한 것이다. 정의는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대부분 제한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환경, 가정, 직장, 정부, 우정, 내적 삶을 포함하여 영적 및 자연적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핵심적으로, 정의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 즉 샬롬에 관한 것이다.
  3. Peace by definition has two components, a subjective inward disposition or experience, and an outward condition related to culture, surroundings, circumstances, global affairs, and created order.  
     평화는 개념 정의상 두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주관적인 내적 성향이나 경험과 문화, 환경, 상황, 지구적 문제 및 창조 질서와 관련된 외적 요소가 있다.
  4. John 14:27 make two essential assertions. Jesus says that the shalom He gives is ***His version*** of it and His version of justice is ***not compatible*** with the shalom of the world. He has a different way.  
     요14:27은 두 가지 본질적인 주장을 한다.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은 **예수님 버전**의 샬롬이며 예수님 버전의 정의는 세상의 샬롬과 **양립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

1. justice begins with our deep union with god  
   정의는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에서 시작된다
   1. The core issue of justice is right standing and spiritual union with God through Christ Jesus, without whom there is no justice. Injustice entered the world when Adam broke fellowship with God.   
      정의의 핵심 이슈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바로 서 있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이다. 예수님 없이는 정의도 없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졌을 때 불의가 세상에 들어왔다.
   2. The day that Adam rebelled against God and broke fellowship with Him is the day that injustice entered into the world (Gen. 3). From then on, all have sinned and fallen short of the glory of God.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진 날이 불의가 세상에 들어온 날이다(창 3장).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23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24being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is in Christ Jesus, 25whom God set forth as a propitiation by His blood, through faith, to demonstrate His righteousness, because in His forbearance God had passed over the sins that were previously committed, 26to demonstrate at the present time His righteousness, that He might be just and the justifier of the one who has faith in Jesus. (Rom. 3:23-26)  
23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24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25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26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롬3:23-26)

* 1. The born-again experience, spiritual union, is the beginning of *shalom*, of justice. This is part of Jesus’ message to the apostles. He assures them that He, the Messiah, will, and is in fact, mending the world by ushering them, as well as others, through the ministry of the apostles, into union with God.  
     거듭남의 체험, 영적 연합은 **샬롬**의 시작, 정의의 시작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하신 메시지의 일부이다. 예수님은 메시야이신 그분이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세상을 고치실 것임을 확신시켜 주셨다.

20“I do not pray for these alone, but also for those who will believe in Me through their word; 21… as You, Father, are in Me and I in You; that they also may be one in Us ... 22And … 23I in them, and You in Me … (Jn. 17:20-23)  
20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2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 23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 (요 17:20-23)

* 1. Shalom is inward as well as outward. Jesus’ way is to first establish shalom on the inside, both positionally through union with God, as well as experiencing spiritual pleasures within, resulting in the experience of peace as well as the expression of shalom towards those around us.  
     샬롬은 외적일 뿐만 아니라 내적이기도 하다. 예수님의 길은 먼저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위치적으로 또 내적 영적 기쁨을 체험하는 내적인 샬롬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은 평안을 체험하게 하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샬롬을 표현하게 한다.

25“Woe to you, scribes and Pharisees, hypocrites! For you cleanse the outside of the cup and dish, but inside they are full of extortion and self-indulgence. 26Blind Pharisee, first cleanse the inside of the cup and dish, that the outside of them may be clean also. (Mt. 23:25-26)  
25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26눈 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마23:25-26)

15And let the peace of God rule in your hearts, to which also you were called in one body; and be thankful. (Col. 3:15)  
15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 3:15)

* 1. In John 14, Jesus reorients the thinking of the disciples, who understood shalom from the yoke of the law and nationalistic pride, to seeing Jesus’ shalom as the true Messianic hope. It is a peace that is firstly inward, independent of our outward circumstances, rooted in our active union with God.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멍에와 민족주의적 교만에서 샬롬을 이해한 제자들의 생각을 진정한 메시아적 소망으로써의 예수님의 샬롬을 보도록 방향을 바꾸셨다. 이것은 첫째로 우리의 외적 환경과 관계없이 내적이며 하나님과의 능동적인 연합에 뿌리를 둔 평안이다.
  2. Jesus’ shalom, the kingdom in this age, will firstly have a predominant, ***not sole***, inward manifestation, and will have an external eschatological expression in the next age when He returns as He brings heaven to earth and establishes the Father’s house, the New Jerusalem, on the earth.  
     이 시대에서 왕국, 예수님의 샬롬은 먼저 내적 현시가 **단독적이지는 않지만** 지배적이다. 그리고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시며 아버지의 집인 새 예루살렘을 지상에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다음 시대에 종말론적 표현으로써 외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20… He was asked by the Pharisees when the kingdom of God would come, He answered them and said, “The kingdom of God does not come with observation; 21nor will they say, ‘See here!’ or ‘See there!’ For indeed,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Lk. 17:20-21)  
20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21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눅 17:20-21)

2Then I, John, saw the holy city, New Jerusalem, coming down out of heaven from God…” (Rev. 21:2)  
2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계21:2)

1. the cross as the way of jesus’ peace  
   예수님 평안의 길로서의 십자가

19For it pleased the Father that in Him all the fullness should dwell, 20and by Him to reconcile all things to Himself, by Him, whether things on earth or things in heaven, having made peace through the blood of His cross. (Col. 1:19-20)  
19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20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 1:19-20)

* 1. The New Testament shows us Christ and Him crucified as central to discovering God’s beauty. The cross, or the way of the cross, is the central theme of the Upper Room Discourse. This is seen in the context of His instruction, the Passover, as well as being Jesus’ starting point, the subject of His departure. The cross is an essential grid to understand what Jesus is calling us to in the Upper Room Discourse. (Jn 13:1, 3, 21, 34, 36; 14:2, 15, 21;15:10, 12, 17, 18-24; 16:16-17, 20-22, 32; 17:1).  
     신약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여준다. 십자가 또는 십자가의 길은 다락방 담화의 중심 주제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출발점이며 그분의 떠나심의 주제로써 예수님의 가르침인 유월절이란 문맥에서 볼 수 있다. 십자가는 다락방 담화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이해하는 필수적인 그리드[격자]이다. (요 13:1, 3, 21, 34, 36; 14:2, 15, 21; 15:10, 12, 17, 18-24; 16:16-17, 20-22, 32; 17:1).

1Jesus spoke these words, lifted up His eyes to heaven, and said: “Father, the hour has come. Glorify (on the cross) Your Son, that Your Son also may glorify You...” (Jn. 17:1)  
1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십자가에서)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요17:1)

14“But God forbid that I should boast except in the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 by whom the world has been crucified to me, and I to the world.” (Gal. 6:14)  
14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 6:14)

* 1. Jesus establishes His peace on earth through the finished work of the cross and His people walking out the way of the cross, which is the embracing, experiencing, and expressing of God’s love.  
     예수님은 십자가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 이 땅에 평안을 세우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체험하고 표현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2. In John’s gospel, Jesus mentions the Father’s house twice (Jn. 2:16; 14:2). The first mention is connected to the Temple in Jerusalem, however, the second mention points to the Heavenly Temple, the New Jerusalem. In the ancient world the temple, or mountains, were seen as the connect point between heaven and earth. The idea of Tikkun Olam included connecting earth to heaven.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을 두 번 언급하셨다 (요 2:16, 14:2). 첫 번째 언급은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되어 있지만, 두 번째 언급은 하늘 성전인 새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고대 세계에서 성전 또는 산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지점으로 여겨졌다. 티쿤 올람의 아이디어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것을 포함한다.

3… Come, and let us go up to the mountain of the Lord, to the house of the God of Jacob (Father’s house); He will teach us His ways, and we shall walk in His paths.” (Isa. 2:3)  
3…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아버지의 집)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 (사2:3)

10And he carried me away in the Spirit to a great and high mountain, and showed me the great city, the holy Jerusalem, descending out of heaven from God. (Rev. 21:10)  
10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계21:10)

* 1. The universe is fully mended when heaven and earth are ***manifestly*** reconciled when the Heavenly Temple is on the earth and the presence of the Father is fully expressed in the earth. Jesus accomplished this for us through the cross and calls us to follow Him in this way.  
     하늘의 성전이 지상에 있고 아버지의 임재가 땅에 온전히 표현될 때인 하늘과 땅의 화해가 **나타날 때** 우주는 완전히 고쳐지는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해 이 일을 이루셨고, 이 길로 그분을 따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10For it was fitting for Him, ﻿﻿for whom are all things and by whom are all things, in bringing many sons to glory (celestial city), to make the captain (Archēgos – founder of a city) of their salvation perfect through sufferings. (Heb. 2:10)  
10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천상의 도시)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아르헤가스-도시의 창시자) 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2:10)

﻿19This hope we have as an anchor of the soul, both sure and steadfast, ﻿﻿and which enters the Presence behind the veil (the New Jerusalem, the celestial city), ﻿20where the forerunner has entered for us, ... (Heb. 6:19–20)   
19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새 예루살렘, 천상의 도시) 안에 들어 가나니20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 우리를 위하여 들어 가셨느니라 (히12:19-20)

* 1. The experience of inward peace in this age comes through appropriating the union we have with Christ and the access we have to the city, the mountain of the Lord.   
     이 시대의 내적 평안의 경험은 우리의 그리스도와 맺은 적절한 연합과 주님의 산인, 도시에 대한 액세스를 통해 온다.

22But you have come to Mount Zion and to the city of the living God, the heavenly Jerusalem, to an innumerable company of angels … (Heb. 12:22)  
22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히12:22)

1. Understanding Abraham by Rabbi Zalman Melamed- www.yeshiva.org.il [↑](#footnote-ref-1)